

참여연구원 칼럼



처음처럼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SSK)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시작하기도 어느덧 칠년이 되었다. ‘마음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려 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지난 6년이란 시간 동안 국내외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다. 물론 그 물음에 대해서는 완결된 답변을 찾지 못했다. 이 물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그사이 걱정과 우려를 하던 시각들이 변화되어 마음통합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센터는 마음체계의 통합이란 개념을 통해서 사회통합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난 9월 1일 대형단계 연구를 개시했다.

대형단계 연구 과제는 “마음체계의 통합기제 연구 및 사회통합이론 재구성”이다. 대형단계는 총 4년간 진행되며, 1차년도 연구는 “남북한 마음체계 갈등구조의 중층성 분석”이다. 또 본 연구센터는 ‘분단의 역사’, ‘필요의 마음’, ‘비/적대적 마음’, ‘공감의 마음’ 등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된다. 분단의 역사 클러스터는 탈근대적 역사성과 장소성을 발굴하여 분단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필요의 마음 클러스터는 남북한 갈등 상황에서 양국의 이해관계 공유와 협력, 상호 필요(needs)로 하는 마음상태를 충족해줌으로써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으로 나

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적대적 마음 클러스터는 상호 관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마음의 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 관계맺음을 상징하고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비적대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감의 마음 클러스터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윤리적 마음체계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클러스터의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는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소형단계와 중형단계에서 그러했듯이 처음처럼 한 걸음씩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물론 주변의 기대는 큰 부담이다. 대형단계에 오면서 학계의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연구재단의 기대 역시 더욱 클 것이다. 사실 사회과학 연구에서 6년이란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지난 시기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서 놀라운 일일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주변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남북한 마음통합의 연구단에 그 동안 보여준 학계의 관심에 크게 감사드린다. 연구자들은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대형단계의 연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마음통합 연구에 관심과 기대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센터 소식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마음통합연구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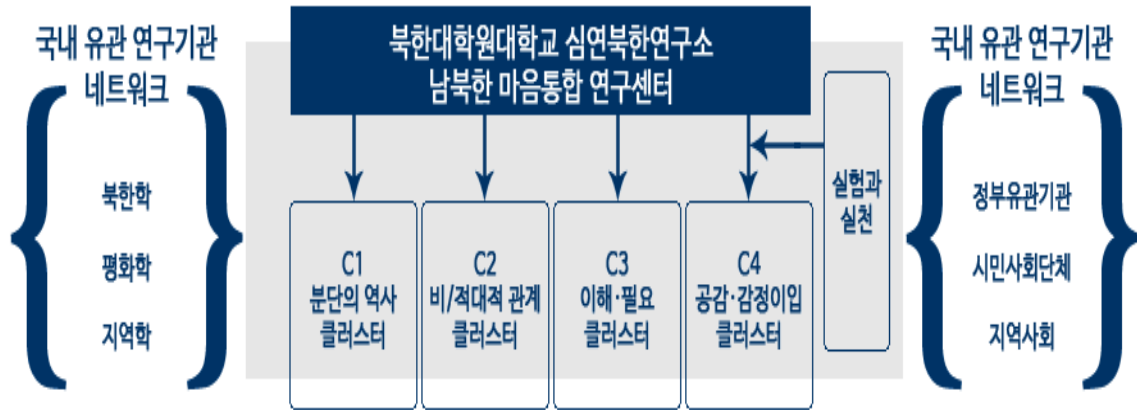


그림 설명: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연구추진체계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마음통합연구단(단장 이우영 교수)은 지난 9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Social Science Korea, 이하 SSK) 3단계 대형과제 사업단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형과제 선정으로 연구단은 대형연구센터인 “SSK남북한마음통합 연구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연구센터 연구진은 연구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16명의 국내외 공동연구원과 4명의 전임연구인력, 8명의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문화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원이 포진하였습니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마음체계의 통합기제 연구 및 사회통합이론의 재구성’이라는 의제 하에, 향후 남북한 마음체계 통합기제의 이론화를 위한 연구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마음체계 통합의 단계와 영역을 고려하여 분단의 역사, 비/적대적 마음, 필요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라는 4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

남북한 마음체계 갈등 구조의 중층성 분석 △남북한 마음체계 분석의 국제화 △한반도 마음통합의 이론화 △한반도 마음통합의 정책화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학술대회, 워크샵, 사회적 활동 등의 다양한 대내외활동을 함께 실시하여 연구센터의 성과 공유 및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향후 본 연구센터의 문제의식 확산과 대내외 소통을 목적으로 매 월 초 연구센터 뉴스레터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뉴스레터에는 연구센터 참여 연구진들의 칼럼 및 연구 성과, 연구단 동정 등의 기사가 수록될 예정입니다. 유관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학문후속세대뿐만 아니라 남북한 마음통합의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 관심을 기대합니다.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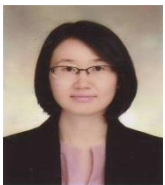
양문수·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주민과 중국주민의 마음에 대한 비교연구 - 물질주의와 집단-개인주의. 『정치정보연구』 제20권 2호 (2017)

본 연구는 북한주민과 중국주민의 마음에 대해 물질주의 및 집단-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적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에 일시 체류 중인 북한주민 100명과,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주민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주의 성향의 하위 범주 별로 북중 주민 간 차이를 검증하였을 때, 물질주의 성공, 물질주의 만족, 물질주의 만족질투의 3개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성공 성향은 북한주민이 중국주민보다 약하지만 만족, 만족질투 성향은 북한주민이 중국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개 차원으로 분류되는 수직적/수평적 집단-

개인주의(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경우, 북한과 중국주민에게서 공통적으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주민에게서는 수평적 개인주의가, 중국주민에게서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각각 가장 약하다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북중 주민 간 집단-개인주의 성향 차이의 분석에서는, 수평적 개인주의를 제외한 모든 차원(수직적-수평적 집단주의 및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북한주민이 중국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결과가 일반의 예상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함의를 논하였다.



장윤미 (서강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 마음: 몫을 잃은 자들의 마음 『중소연구』 제 41권 1호 (2017)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현재 제2차 해고사태를 앞두고 있다. 이 논문은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 해고된 혹은 불안한 일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마음’을 살펴본다. 사회주의체제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노동자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키우며 세대를 거쳐 땀으로 일궈낸 삶의 터전이자 특별한 마음과 감정이 담긴 자신의 ‘집’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개혁의 주류적 담론과 함께 변화된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유기업 노동자들에게 국유기업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노

동자들은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 노동의 관점에서 이들의 ‘마음’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개혁의 과정과 담론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 뿐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의사결정참여와 이익 공유라는 국유기업 원칙에서도 노동자들의 몫은 철저히 배제되어온 것이다.

연구단 동정

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이 2017년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3 단계 대형연구센터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임 연구교수로 박세진 박사, 이하연 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연구단에 최종환(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김혜인(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손유나(동국대학교 박사과정), 김형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이 충원되었습니다.

9월 18~19일, 심원북한연구소의 구갑우 교수, 김성경 교수가 신한대 '탈분단 경계문화연구원'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주제는 '평화 프로세스와 경계의 역동성: 아일랜드와 한반도'입니다.



9월 23일 국제DMZ다큐영화제의 포럼에 '왜 북한인가?: 북한을 향한 불온한 시선과 열광'이라는 주제로 이우영 단장, 이향진 공동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2일 문화인류학자 김현경 선생님을 모시고 내부 콜로키움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의 두 번째 단행본인 '분단된 마음의 지도' 책이 사회평론아카데미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실험과 실천



제9회 국제DMZ다큐영화제 기획 상영회 “다큐로 만나는 북한”의 일환으로, 8월 26일 영화 ‘마담B’를 상영하였습니다. 대담 패널로는 권금상(문화연대 분단문화위원회) 공동연구원과 윤재호 감독이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네트워킹 활동



SSK네트워킹 제1차 심포지엄(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에서 최종환 연구보조원이 “한반도 정세와 미디어 프로파간다”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말고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구갑우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강대강 구도로 이끌고 왔다” 며 “1991년 실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어낸 적도 있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을 높이기보다 새 판을 짜기 위한 대화 중심의 유연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구갑우, [北 6차 핵실험] “대북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외교보다 군사적 대응 필요하다”
서울경제 2017.09.03.

구갑우 교수는 남북 아일랜드가 통일과 연합 내지 연방을 상상하는 과정은 '탈분단' 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굳이 통일이라는 말 대신 탈분단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그건 통일이 정치구호로 오염돼 있고 현실과 유리된 당위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통일에 앞서 평화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갑우, [한반도 플러스+] 벨파스트에서 열린
'평화 프로세스와 경계의 역동성: 아일랜드와 한반도' 컨퍼런스, 한겨레 2017.09.17.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당장은 사재기나 밀무역을 통해 현상유지를 할 수 있더라도 제재를 피해가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아홉번째 제재 북한에게 얼마나 아플까, 중앙일보 2017.09.12.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제재들은 종전과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한선을 설정을 하면서 그것이 일반 무역회사·권력층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영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죠.”

양문수, 북한, 제재국면서 연일 '자력갱생' 강조, 연합뉴스 2017.09.18.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칼럼

말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인 것, 그리고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안전한 영역에 머물러서는 결코 지금의 국면을 전환할 수가 없다. 그 시작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사실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언어로 구성된 제한된 세계라는 것을 간과해야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미쳤다’고 손가락질당할 것이다. 이상주의자라고 폄하될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금지를 넘는 ‘미친’ 상상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김성경, 말할 수 있는/없는 것, 한겨레 2017.09.13.

문화인류학자 김현경은 인구(人口)의 한자어를 풀이하면서 인간은 먹는 입으로 형상화되며 동시에 말하는 입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한다. 문제는 지금껏 말하는 입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대변해 왔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은 먹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라면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온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밥그릇이다. 물론 더 근원적인 악은 밥그릇으로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다.

김성경, 뼈라와 밥그릇, 한겨레 2017.10.18.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김성근의 리더십과 한국정치

『꿀지를 일등으로』, 김성근, 자음과모음, 2009,
『김성근이다』, 김성근, 다산라이프, 2011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리더십과 관련하여 한국 프로야구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성근 감독의 모토는 일구이무(一球二無)다(『꿀지를 일등으로』; 『김성근이다』). “삼세번도 없고 두 번도 없다. 한 번 던진 공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다.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작은 세상 하나가 창조된다. 타자가 치는 공 하나에도, 수비수가 잡는 공 하나에도 ‘다시’란 없다. 그래서 공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진정으로 최선의 플레이를 해야 한다.” 지도자 김성근 감독의 ‘야구철학’이다. 다시없기에, 그는 공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건다.

그래서일까. 지도자로서 김성근 감독에 대해,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야구를 재미없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사상 초유의 관중이 인천의 문학구장을 찾게 했다. 재미가 없다면 그들이 야구장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승리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집중력이 펼쳐는 경기에” 인천시민의 1/3 가까이 관중들로 꽉 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었다(오쿠다 히데오, 『야구를 부탁해』).

김성근 감독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비판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선수들을 혹사한다는 것이다. 그는 훈련이야말

칼럼 연재

로 목표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주류” ‘김성근’이, 지도자로서 하나의 “텍스트”가 되기 위해 거친 과정은,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한다. 김성근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승의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는, ‘야신’(野神)이라는 별명을 그에게 부여했지만 “통한의” 패배였던 2002년 한국시리즈 이후, 2005년부터 일본 프로야구 롯데 마린즈에서 감독이 아닌 코치 생활을 거쳐야 했다. 그는 거기서, 청바지와 웃음을 만난다. 선수들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감시하는 “잡자리 눈깔”이 이제는 ‘소통’이 된다.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절감했던 그의 경험은, 2007년부터 벌써 야구와 같이 ‘창의력’을 가지는, 그래서 항상 한국 프로야구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드는 질문을 하는, 무명과 약자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감독으로서 “무릎을 덜덜 떨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게 한다. 그러나 2011년 김성근 감독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다시금 권력 위의 권력을 실감하며 비주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일구이무의 리더십이 정치, 기업, 시민사회의 세계에서 그 힘을 발휘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원한다면, 텍스트 김성근에게 배울 것이 있다. 첫째, 철학이자 비전이다. 그에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목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법이 있고, 방법과 목표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인식도 있다. 둘째, 공부와 실력이다. 그만큼 야구를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 하루 종일 야구만을 생각하며 공부한다. 셋째, 그는 철학과 실력을 바탕으로 그의 팔로우워(follower)를 공감하게 했다. 소통 없이 훈련이 있을 수 없다. 그의 리더십은 긍정적 팔로우워십 없이, 즉 리더와 팔로우워가 쌍방향 소통을 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넷째, 조금 과장한다면, 그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편집증적 창조력을 떠올리게 한다. 애플 i시리즈의 신도들이 느끼는 감흥만큼이나 그의 야구에는, 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야구가 정치만큼 당파적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잡스도 당파적이기에, 매혹이 있다. 다섯째, 그는 권력에 저항하는 지도자다. 리더십의 본질 가운데 본질은 모든 권력에 저항하는 권력을 만드는 일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리더십은 야구와 기업과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야구와 기업이 승리와 이윤이란 목표를 가진다면, 정치는 야구와 기업처럼 권력투쟁의 현상이지만, 공공성의 증진이란 다른 목표를 지향한다. 정치란, 공과 사의 경계를 다시 긋는 작업이다. 정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성은 당파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당파성을 공공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리더십과 팔로우워십이 어우러진 정치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 당파성만을 추구하는 리더십은 팔로우워십을 배제하는 외곬의 권력이다.

리더와 리더십이란 배가 난파할 때,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주장도, 정치의 영역에서, 정말로 현저하다. 위기야말로 리더십의 현전을 보여주는 계기다. 우리는 지금-여기서,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남북관계의 위기와 평화의 부재,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총체적 위기다. ‘안철수 현상’은 리더와 리더십의 위기는 있지만, 그 대안이 현실정치의 세계에는 부재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어떤 시민국가·복지국가·평화국가인가를 정의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민의 의식전환과 참여 없이, 정의와 실력을 함께 가진 국가와 국제체제를 만들 수 없다. 즉 리더십과 팔로우워십이 어우러진 선택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보수라면, 통합의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 복지와 평화가 성장의 동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진보라면, 연대의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 복지와 평화가 자유의 원천임을 생각해야 한다.

편집: 김민지 연구보조원, 이하연 연구교수